

# K-교육특별시 준비위, 대한민국 교육표준 설계 밑그림 제시

김대중 특별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 '현장 중심·시민 소통' 정책설계 기초 통합·AI·자율분권·메가시티 4대 분야 시민·교직원 등 여론조사...정책 반영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가 대한민국 교육 표준 설계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준비위는 9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대규모 시민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선거 공약을 실무 과제로 재편하기 위한 '실무·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시민 소통형 정책 공유'라는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준비위는 기존 전남과 광주 교육 현장의 정책성을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인 화합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준비위는 국가적 교육 체제 개편 전문가인 김경범 위원장(현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 위

원)과 문승태 부위원장을 필두로 12명의 현장·실무 전문가 구성을 마쳤다.

또한 4대 핵심 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교육 혁신의 표준 모델을 구체화한다. 지역 균형을 고려해 4개 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에 각각 2개씩 분산 배치된다.

통합교육기획위원회는 통합교육청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남·광주의 새로운 교육 과정과 평가 체계를 설계해 학교 교육 기준의 대전환을 이끈다.

AI교육대전환위원회는 미래교실과 디지털 교육체제를 전면 설계한다. AI 기술을 실제 수업과 행정 혁신에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등 스마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주로 직결시킨다.

자율분권교육위원회는 교육자차·학교 지원 체계 혁신에 집중한다. 거버넌스 개편, 교권 보호, 돌봄 체계 등을 논의하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를 더 잘 지원하는 조직'을 구현한다.

메가시티교육위원회는 교육을 지역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둔다. 지자체·대학·기업 협력 모델 구축, 학생교육수당 및 직업계고 개편 등을 통해 배움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다.

준비위는 오는 15-21일 시·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 4천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청 정책 여론

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아이디어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사는 통합교육청에 대한 기대감과 중점 관리 과제를 비롯해 ▲기초학력 보장 ▲AI 미래교육 ▲학교 및 입학 전형 등 학생을 위한 핵심 정책 ▲지역 상생 및 소통 등 10개 핵심 문항을 묻는다.

교직원 대상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별도 실시한다. ▲통합교육청 기대 및 중점 과제 ▲교육정책 방향 ▲행정조직 형태 및 인사 제도 운영 ▲지역 상생 등 17개 문항을 통해 행정·실무 중심의 여론을 수렴한다.

준비위는 전남·광주지역 분야별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대학, 지자체 등 전문가들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개방형 소통 플랫폼 '준비위에 바란다'도 가동해 다양한 정책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안정적인 통합을 이뤄냄과 동시에 입시와 평가의 새로운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이라며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는 만큼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통합교육청의 첫 설계도에 빈틈없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당선자는 "K-교육특별시의 성공은 시·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달려있다"며 "현장과 실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인 '케이(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범(사선 가운데) 준비위원장이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시민 소통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 교육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10일 출범식을 갖고 7월30일까지 할

동하며 통합교육청 핵심 과제 및 정책 비전 대국민 보고회, K-교육특별시 실행 백서 발간 등을 진행한다. /박선욱 기자

## “전남광주에 반도체 팹 유치해야”

임문영 “기업, 균형발전 고려 결단”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9일 “전남광주에 반도체 팹(FAB)을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 후보지로 전남·광주권이 거론되고 있다”며 “반도체 팹 유치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남광주는 AI 산업 기반과 재생에너지, 우수한 인재와 연구 역량,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등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다”며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역량 강화와 AI 실증도시 구축은 미래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조건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반도체 팹은 연구기관과 협력 기업,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인재가 함께 모이는 미래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통합특별시, 대학,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이자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반도체 팹 유치는 꿈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요구했다. /변은진 기자



## 김영록 지사 “반도체·AI 첨단기업 오는 길 열어”

“李大통령 통합특별시 지원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넘쳐나고 지역 전체가 분산에너지 특구인 전남광주에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줬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반도체공장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발굴하고 R&D를 착실하게 준비해온 전남·광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광경을 곧 보게 될 것 같아 가슴이 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 취임 1년간 대한민국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며 “전남·광주 또한 문자 그대로 경천동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전폭 지지 속에 대한민국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재정 인센티브 20조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최대한 몰아서 보내겠다. 먼저 통합한 전남광주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대인 게 사실로 호남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머지 않아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가 같은 대기업의 지방 투자가 있을 것이다. 전기를 생산한 지역의 전기료가 더 싸지게 된다. 자산지소 원칙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재정기자

## 전남산림림, 밀원수종 활용 향장산업 육성

3개 기관과 유망 수종 발굴·보급 협약

전남도산림림원은 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숲과꽃발원연합회, 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 전남화장품혁신협회와 유망 밀원수종 육성·향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산림·양봉·그린바이오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난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유망 밀

원수종 발굴·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와 향장산업 육성으로 산림·양봉·바이오 산업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산림 밀원수종의 발굴·보급과 밀원수 조성 확대 ▲밀원수종 기반 기능성 소재와 화장품 원료 개발 ▲제품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 안정화 등 임업·양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정기자

천년의 영광에서 꽃피는 오백년 단오제

2026 영광 백영포 단오제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

광주매일신문 창간 35주년 SINCE 1991

花 鳥 風 樂

꽃피고 새 울고 바람따라 풍류따라

2026. 6. 18.(목) ~ 6. 21.(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난장마당(법성포뉴타운거리)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군교육지원청 한수원주한빛발전본부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 지부장 장흥모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용출 영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길수 백수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조형근

서영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상호 굴비골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안수정 영광산림조합 조합장 정태범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제천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에너지개발연구원, 영광군수업, 굴비골농협